

## 행 불행<sup>幸不幸</sup>은 마음먹기 나름

글 권오분(수필가)

금강산엘 다녀왔다.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던 금강산을 단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인가.

배를 타고 멀고 먼 영해상으로 돌아서 금강산엘 갔던 초기에 나는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캄캄한 밤바다를 향해하면서 참으로 가깝고도 먼 곳이구나, 했는데 육로가 열리면서 코 앞의 장소가 된 것이다.

2박 3일, 1박 2일, 무박2일 코스가 있지만 굳이 힘이 들 것을 알면서도 무박 2일 코스를 선택한 것은 멀리 있는 느낌을 가까운 느낌으로 실체감을 갖고 싶었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이 되기 때문이었다. 밤중에 버스로 고성으로 가서 찜질방에서 한잠 자고 새벽에 움직이는 것이 스피드감이 있었고 우리는 극기훈련 하는 기분이라고들 했다. 같은 장소에 불박이로 있는 금강산을 찾아가는데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동해는 맑고 푸르고 바람은 맑고 차다. 정신이 번쩍 들만큼 쌀쌀한 날씨에 코 끝이 쨍했지만 폐부에 깊숙이 새바람이 들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동해의 명물인 황태국을 조반으로 먹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국경 아닌 국경을 향해 달리는 기분은 아주 묘했다. 비무장 지대에 온빛 바다를 이루고 역사가 장관이었다. 가이드는 많은 주의사항을 나열했지만 귀에 들질 않는다. 설레임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희한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텅 빈 산도 마음 아프고 추수를 하지 못한 들판의 벼들이 빈약한 쪽정미만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이란 게 이런 걸까 싶기도 하고…….

몇 년 전에 들렀을 때 산뜻했던 온정각이 많이 낡아진 걸 보면서 세월이 흘렀음을 실감했다. 그때는 6월이라 덥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고생을 했는데 맑디맑은 가을 바람이 겨드랑이 밑으로 지나가는 느낌이 너무나 상쾌해서 나비처럼 양팔을 들고 걸었다. 구룡폭포를 향해 걸어 오르는 길

이 조금 습차고 힘들었지만 옥빛의 크고 깨끗한 바위들 사이로 힘차게 흘러 내리는 계곡의 물이 너무 맑아서 영혼까지도 정화되는 것 같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청정함이 유지되길 바랐다. 구룡폭포의 물은 여전히 즐기차게 쏟아지고 있어서 장쾌했다.

조금씩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고 온몸이 젖어 들었지만 맑은 느낌이라 기분이 좋았다. 비를 맞은 단풍은 더욱 붉고 초록의 소나무는 더 푸르게 보였다. 바위에 모기를 부리듯 자라고 있는 단풍나무와 소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황홀경에 들게 했다. 식물은 다양하지 않았다. 금강산에 들기 전에 다른 산들에 나무가 없어서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금강산의 소나무들은 잘 보존 되고 있어서 마음이 놓였다.

그 많은 규제에도 곳곳에 과자 봉지들이 떨어져 있었다. 관광객이라고는 100% 우리나라 사람들 뿐일 텐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나마 규제가 심하니 망정이지 자유롭게 돈다면 오래지 않아 오염되고 망가질 것 같았다. 완전한 자유 속에서도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좋아질까 생각하니 안타깝기만 했다. 통일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산천을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우리 모두 사랑하고 가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이 어찌 금강산뿐이라,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각자가 자기의 안방처럼 아끼고 보존되길 바라고 또 바랐다.

아침의 맑음과 비를 맞은 한낮의 풍광이 너무나 달랐다. 같은 곳을 오르내렸을 뿐인데 전혀 다른 곳을 본 것 같았다.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복잡한 수속을 마치고 분단선을 넘어 비무장 지대를 지나오는데 아침에 보았던 역새발이 지는 해를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아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단지 빛의 방향이 바뀐 것만으로도 이토록 풍광이 달리 보일 수도 있구나 싶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면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구나 싶었다.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복잡한 수속을 마치고 분단선을 넘어 오니 우리의 산하가 어찌나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지……. 아침에 먹던 황태국을 저녁으로 먹는데 맛이 달랐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는 맑은 금강의 계곡을 즐기고 그들은 우리의 개운한 황태국을 먹을 수 있기를 빌었다. 우리가 보고 온 것은 단순히 산이 아니었다. 마음먹기 나름으로 행과 불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았다. †

이 글을 쓰신 권오분 님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저서로는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공저)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등이 있습니다.